(이 銅鐘에 關한 經緯는 京鄕新聞(十二月 五日)에 報道된 바 있다)

◎ 慶州 臺藏寺址石塔復元

오랫동안 倒壞되었던 同三層石塔은 昨年十二月에 復原建立되었다는 바 監督은 洪思俊氏、施工은 林德昌氏이며 石燈蓋石도 塔前에 保存키로 되었다。(洪思俊氏通信)

◎「金石遺文」의 刊行

本會의 考古美術資料 第二輯으로서 「金石遺文」의 編輯이 完了付印되었는 바 收錄件數는 約一四〇에 達하며 內容은 碑文과 鐘銘 塔銘 造像銘 香爐銘 等으로 分類되었다。

南大門通信(五)

金 正 基

南大門重修工事는 現在 木部組立工事에 集中되어 進行되고 있다。

木部組立은 上層屋蓋部分이 進行中이며 下層部分은 十一月初旬에 거의 끝나고 上層部分도 貢包部分과 屋蓋의 主要構造材는 組立이 끝났으며 十二月 二十二日에 豫定되는 上樑式에 올리는 건물 가운데 칸의 종도리만을 남기고 있다。 只今 上層椽木工事가 主要工事로 進行되어 있다。

第二工事場에 移動保管된 舊材와 治木된 新材는 建物組立에 발맞추어 第一工事場에 運搬되었으며 現在로는 全部材가 第一工事場으로 移動되어 積心에 使用되는 不要材는 整頓되어 別途로 保管되어 있다。

今般重修에서 새로운 企劃으로는 모든 新材에는 後世의 工事를 위하여 이번 重修時에 新材로 補充되었던 것을 明示하는 火印(서울市 마-크 中央에 「南」字를 넣은 것)을 찍어 他部材와 區別토록 하였다。

鍛治場의 鮮釘製作 作業은 工事에 必要한 七千餘個를 供給하기 위하여 夜間作業까지 하면서 서둘고 있으며 水原近郊에서 都給으로 實施되는 蓋瓦、塼 및 雜像들은 煖房設備를한 室內에서 製作되고 있다。

雙峰寺通信(一)

申 榮 勳

지난 九月 二十一日부터 長韓建築社(代表 鄭復永)는 同寺大雄殿(三層殿) 解體重修工事를 着工하였다。 建物周圍로 浮柧를 架設하고 먼저 實測을 十月 一日부터 同三十日까지 金周泰·俞門龍外 三人이 施行하였다。 實測은 벤치마-크를 基本으로 하고 各部材의 位置를 據點으로 하여 차근차근 逐測하여 올라가면서 架構의 基本方針을 찾아내고 各己 部材의 規格과 狀態를 實測하였다。 이때 心柱를 中心으로 二·三層 四柱의 定礎狀態와 建物內外의 連結을 細密히 注意하였다。 實測이 끝나자 各部材別의 一覽表를 作成하여 復原値의 規格을 決定하는 한편 再使用材와 不要材를 選定하고 곧 建物解體에 着手하였다。 以下 工程中 發見된 事況을 工事別로 略記하기로 한다。

一、屋蓋의 狀態

蓋瓦를 벗기면서 特別히 考慮된 手法의 有無를 注視하였으나 一般的인 方法으로 平凡하게 葺瓦하였고 銅線結索 等의 例는 發見되지 않았다。 蓋瓦가 降下하자 補土를 긁어내렸는데 여기서 數點의 夫·女莫斯瓦가 나왔다。 補土와 흙두께 흠은 上質의 진흙을 使用하였는데 剛灰味는 別로 없는 듯 하였다。 補土除去後 積心을 解體하다보니 散子발 위에 不整하게 積置한 것중에 他建物에 使用되었던 部材가 混在하고 있음을 發見하였고 散子발 자체도 四面이 同一한 手法에 依하여 엮어지지 않았으며 使用材도 달라 어떤것은 새끼로 엮고 어떤 것은 칡으로 하였는데 散子도 古來의 것과 新材가 混存하고 있었다。

A、出土遺物

(1) 浮柧材……極히 적은 規格을 가진 가느다란 것으로 어떤 것에는 丹靑의 무늬가 있기도 하다。 이들과 同一한 것이 建物三層各該部分의 一部에 散在하여 있기도 한데 本建物과는 全혀 關係 없는 値數의 것으로 最近에 他建物의 것을 옮겨다 後補한 듯 하고 積心으로도 넣었던 모양이다。

(2) 長箭材……亦是 規格이 적은 것으로 門扉用은 아닌듯 하고 壁體用이었던 듯한데 同一地點에서 長箭數本과 그의 中帶가 共出하였다。 帶는 촘촘히 長箭

을 세워 꽂을 수 있도록 마름모꼴의 구멍을 쭉 뚫은 것인데 흔히 碑閣이나 三門의 左右側間 尊像앞에 施設하는 것과 같은 樣式의 것이다.

(3) 莫斯瓦……銘文있는 女莫斯瓦만 擧例하자면 其一은『崇禎八年」乙亥四月日雙峯」大施主金八莊方莫士兩主云云』其二는『崇禎」八年九月日」雙峯寺造瓦」云云』其外에『飯主海云」康熙二十五年」丙□二月□海』云云。『雍正伍年」丁未三月日』(反書)。『乾隆」四十五」年三月日」大都監云云』等인데 其中『雍正五年』『乾隆四十五年』銘의 蓋瓦는 葺瓦中에도 多數 散在하고 있는 것이다.

二、木部의 狀態

A、宗道里 및 合閣部分

宗道里(長 一一·〇二尺 末口 〇·七六尺)는 三層의 道里中心部에 놓인 童子柱에 놓였는데 宗道里中央이 長舌과 함께 心柱 윗몸에 꿰어져 있고 그 周圍에 各 春舌의 뒷몸이 結構되어 있다。童子柱밖 左右로는 合閣을 만들고 朴工을 달았으며 木只椽을 걸었는데 木只椽은 積心에서 出土된 바 있는 浮椽과 同一한 것이고 朴工板도 原來의 用材를 前後切斷하여 使用한 것이다。서까래가 宗道里에 걸리는 모양도 제각기 달라서 一部는 長椽위에 헛서까래를 걸어 지붕물매를 잡기도 하였다。이와 같이 합각머리가 어슬프고 본래의 부재나 가구등과 동떨어짐은 웬일일까 여러가지 疑問이 있어 일일히 調査實測하면서 解體하고 보니 이 部分이 近來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하여 첨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假定에 到達하게 되었다。그렇다면 지금의 팔작지붕은 본래 어떠한 형태의 지붕이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잠간 이 문제를 뒤로 밀고 發見된 上樑文에 言及하기로 하자。

宗道里를 解體할 때 長舌과 分離하여 보니 도리바닥을 넓이 四·二寸의 폭으로 대패질 하고「雍正二年歲在甲辰三月日上樑竣之觀者開而感焉」이라고 墨書하였다。그 위로 홈을 파고 나무쪽으로 뚜껑을 덮고 뚜껑과 몸체에 어울러「緘封」이라고 墨書하였으며 다시 그 위에「開坼」이라고 陰刻朱書하였다。뚜껑을 열면 長 九·六寸 幅 一·八寸 深 二·九寸의 홈이 있고 거기에 四分厚의 널판쪽을 덮은 것이다。溝內에 橫在하는 竹筒을 꺼낸즉 뚜껑을 T形으로 나무로 깎아 막고 그 안에 두루마리를 넣었다。壯紙(長 一·六七m幅二二·二㎝)에는 上樑文을 墨書하였다。「三層殿記」라 題하고「雍正貳年三月日」에「三重創」한 內容(本誌 資料欄 參照)이 記錄되어 있는데 이 文面은「綾州之獅子山雙峰寺諸殿記文輯錄」이나「雙峰寺事蹟記」에 실린 記事와 그 內容이 附合되고 있어 여러가지 興味있는 資料를 보여주고 있다。이것을 檢討하면 積心中에서 發見되는 部材의 由來를 밝힐 수 있을 듯 하다。

이에 對하여는 次號에 繼續키로 한다。

訂 正

在日石獅座像과 그 方形臺座

黃 壽 永

本誌 二卷 二號(一九六一·二)에 실은 表題의 拙稿에서 石獅一軀와 그 臺座를「新羅의 優作으로서 그 年代도 西紀八〇〇年頃으로 推定되는 稀品이다」라고 한 것은 筆者의 誤認이었기에 訂正하면서 同人諸位에게 謝過하는 바이다。

이들은 一九五九年 九月에 日人 星島二郎氏가 自進 寄贈하여 現在 駐日代表部 庭園에 移置되어 있는 것인데 同氏는 二次大戰後 東京의 李王家邸宅으로부터 入手한 것이라 한다。移置된 以後 筆者는 東京에서 二次 星島氏를 만나 直接 問議하였을 때、同氏는 韓日合邦前後에 日本으로 搬出된 것이며 一說에는 伊藤博文이 가져온 것이라고 傳한다고 하였다。一九五九年秋 筆者가 처음으로 이 石物을 對하였을 때 그 造形이 華嚴寺石塔獅子와 너무나 恰似함에 놀랐는데 그 臺座의 形態와 手法(四角의 모를 없앤 것과 上面에 一段받침을 한 것)은 매우 特異하여 그 類例를 찾지 못하고 苦心한 바 있었다。이 點은 最後까지 釋然하지 못하였으나 石獅만은 新羅作으로서 더 疑心하지를 못하였으므로 臺石 또는 石獅와 同時作으로 推定하였고 그 當時 外務部에 報告한 바도 있었다。

一九六一年 九月에 華嚴寺를 찾아서 獅子塔을 細密히 調査할 때에 石獅의 크기와 臺石四面의 天人像이 全혀 同一함이 새삼스러히 注目되어 그 臺座의 實測을 同行한 鄭明鎬君에게 부탁한 바도 있었다。同年秋 再次 渡日케 되었는데 十二月三日에는 李弘稙先生과 같이 千葉縣으로 淺川伯敎氏를 再次 訪問하여 日政初의 우리 古美術事情을 問議한 바 있었다。이 때 그는 옛 記憶을 더듬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던 차에 求禮華嚴寺에 三個月이나 있었다는 말이 우연히 나왔기에 筆者는 그 理由를 물었다。그리하여 石獅의 製作이 目的이었다고 하므로 그 內容을 追窮하게 되었다。同氏는 彫刻이 本業이어서 그의 作品이 一九一九、二〇年